<10.16873/tkl.2016. 73. 91>
한국문학논총 제73집(2016. 8) 91~130쪽

이존오 시조의 맥락 연구*

임 주 탁**

차 례

Ⅰ. 서론
Ⅱ. 텍스트의 확정과 독법 방향
Ⅲ. 선행 독법과 교과서적 해설의 문제점
Ⅳ. 텍스트의 분석과 창작 맥락 추론
Ⅴ.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이존오의 시조 <구름이>에 대한 선행 독법과 교과서적 해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맥락 연구 방법을 통해 작품의 함의를 새로이 해석한 것이다. 교과서적 해설에 기틀을 제공한 선행 독법은 <구름이>가 정치 현실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우의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맥락 연구에서 필수적인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구름이> 텍스트가 '주장(판단)-근거'로 짜인 텍스트라는 점, 같은 인물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내고 있으면서도 <논신돈소>와는 비판의 관점과 준거를 달리 하고 있다는 점 등에도 주목하지 않았다. 그런 까닭에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텍스트의 의미론적 통일성은 물론 그와 맞닿아 있는 맥락을 적확하게 추론하지 못하였다. 작품에 함축된 작가의 의도는 <논신돈소>와 같은 맥락에서 파악했을 뿐이다.

그런데 <논신돈소>가 유사 사례의 반복적 제시를 통해 신돈이 예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서슴지 않는 인물이라는 주장을 드러낸 데 비해 <구름이>는 군주의 은혜가 인민에게 미치는 것을 철저하게 가로막는 인물이라는 주장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논신돈소>가 군-신-민의 위계적인 질서를 와해시킬 수 있는 위험한 인물임을 군주를 비롯한 신하들과 소통함으로써 신돈의 국정 수행을 반대하는 주장에 동조하도록 하려는 의도를 함축하였다면 <구름이>는 결과적으로 인민의 삶을 곤궁하게 만드는 인물임을 내세워 신돈을 중용한 당초 논리('구름은 무심하다')가 실상과 맞지 않음을 드러냄으로써 신돈의 국정 수행에 반대하는 주장에 인민들까지 공감하도록 하려는 의도를 함축하였음을 말해준다.

<논신돈소>에 적시된 신돈의 행위를 비판하는 준거는 관점에 따라 그 타당성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구름이>에 적시된 신돈의 행위를 비판하는 준거는 왕조 국가의 신민이면 누구나 그 타당성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구름이>가 이존오가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 좀 더 많은 독자 혹은 청자들과 소통하고 그들이 자기주장에 공감하도록 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을 시점에 창작되었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 그 시점은 이존오가 장사감무로 폄직된 시기의 어느 시점으로 추론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독법의 과정과 결과는 <논신돈소>와 같은 맥락에서 창작되었다고 전제하고 신돈 비판에만 초점을 맞춘 선행 독법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사고 과정을 통해 <구름이>를 이해하는 길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고려 말기 시조의 연구는 물론 그 교육적 활용에도 적잖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고려 말기 시조, 이존오, 논신돈소, 우의, 맥락 연구

Ⅰ. 서론

이 글은 李存吾(1341~1371)의 시조 <구름이>에 함축된 의미를 맥락 연구(contextual study) 방법을 통해 새로이 해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고려 말기 시조 작품은 모두 조선 후기에 편찬된 가집에 실제 텍스트가 실려 전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작품-작가 관계의 신뢰성 문제가 관련 연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 시기 시조 작품들은 일찍부터 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습 제재로 널리 활용되어 왔다. 국권 상실기 지식인들이 중요하게 다루었던 節義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의 비중이 상당하다는 점, "比較的 作品으로는 優秀하여 後世 時調의 規範이 되었"[1]다든가 "圓熟한 境域"[2]에 도달한 시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작품에 대한 접근성이 비교적 높다는 점 등이 여느 시기의 시조 작품에 비해 교육 자료로서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고려되었던 듯하다. 더욱이 고려 말기 시조의 작품-작가 관계를 부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찾아진 것도 아니다. 긍정은 물론 부정의 논리에도 논거가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러한 형국이라면 해당 작품들을 교육 자료로 활용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작품에 대한 이해가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그런데 오랜 동안 교육 자료로 활용됨으로써 대중 인지도 또한 여느 시기 시조 작품에 비해 높은데도 불구하고 고려 말기 시조 작품에 대한 '교과서적 해설'[3]은 여전히 상당한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 듯하다. 문학

1) 趙潤濟, 『敎育 國文學史』, 東國文化社, 1956(1949), 32쪽.
2) 李秉岐・白鐵, 『國文學全史』, 新丘文化社, 1960(1957), 100쪽.

교육에서 작품에 대한 학습자의 주체적인 이해와 감상을 존중한 지 오래지만, 실제로 학습자의 주체적인 수용은 잘 허용되지 않는다. 교육 평가가 교과서적 해설에 기대어 이루어지고, 그에서 벗어난 반응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교육 평가가 내려지기 일쑤이다. 고려 말기 시조 작품에 대한 독서 대중의 이해 또한 교과서적 해설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이는 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경험을 통해 교과서적 해설이 각인되었거나 대중의 이해를 위해 마련된 해설이 교과서적 해설과 거의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고려 말기 시조 작품에 대한 교과서적 해설은 대부분 해방을 전후한 시기에 마련되었다. 그 시기 이후 해설에 새로운 내용이 보태지기도 하였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선행 해설을 비판 혹은 부정하고 대안적인 해설을 제시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선행 해설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존오의 시조 <구름이>에 대한 교과서적 해설의 기틀은 趙潤濟의 의해 마련되었다. 이후 몇몇 연구자에 의해 주석과 해석에서 약간의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지기는 했어도 수정・보완된 내용은 趙潤濟 해석의 자장 안에서 교과서적 해설을 구성하고 있다. 그런데 <구름이>에 대한 교과서적 해설은 모호하거나 부정확하다. 텍스트의 의미론적 통일성(semantic coherence) 분석은 물론 의미 해석에 관건이 되는 맥락 추론도 합리적인 이해 과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존오의 시조처럼 일찍부터 중등학교 교육과정에 수용된 고려 말기 시조 작품에 대한 교과서적 해설 또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은 禹倬(1262~1342), 李兆年(1269~1343)의 시조에 대한 최근 연구에서도 확인된다.[4] 결국 교과

3)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에 대한 해설이 교과서 안에 함께 포함되지는 않는다. 해설은 교과서 학습을 위해 별도로 제작되는 교사용 지도서나 참고서 등에 실리고, 교사는 주로 그 해설을 수용한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운영 주체인 교사에 의해 수용되는 해설을 '교과서적 해설'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4) 임주탁, 「우탁 시조 작품의 창작 맥락과 함의」, 『배달말』 56, 배달말학회, 2015, 195~230쪽; 임주탁, 「이조년 시조 작품의 분석과 해석」, 『우리말글』 65, 우리말글학회, 2015, 155~201쪽.

서적 해설의 문제점이 선행 독법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물려받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텍스트의 의미론적 통일성을 분석하고 그 통일성을 유지해 주는 맥락을 추론함으로써 텍스트에 함축된 의미를 해석해 보임으로써 이존오 시조를 좀 더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Ⅱ. 텍스트의 확정과 독법 방향

이조년의 시조 <구름이>는 그의 유고 문집에 실리지 않은 노래다. 이를 제외하면 현전하는 그의 시문은 12편인데 모두 『高麗史』와 『東文選』에 수록된 것이다. 『大東野乘』, 『東人詩話』 등에서는 두 문헌에 실린 시문을 선택적으로 수록하였고, 10세손 李裕慶이 간여하여 편집·간행한 유고 문집 『石灘集』(1726)에는 이들 문헌에 수록된 시문이 다시 수록되었다. 시문의 역사에서 이존오는 문학적 재능이 출중한 인물로 평가된 적이 없다. 그의 시문들이 독특한 시학적·미학적 특성을 보여준 것 같지도 않다. 그런 까닭인지 이존오의 시문에 대한 학계의 논의는 매우 영성하다. 그나마 전개된 논의는 그의 유고 문집에 실리지 않은 시조 <구름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전부라 할 수 있다.[5]

고려 말기 시조 작품들은 조선 후기 이후에 편찬된 가집에 수록된 빈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구름이> 또한 조선 후기 이후 해방 이전까지 편찬된 64종의 歌集에 66회나 수록되었다. 그 중 14종이 작가를 밝히지 않은 체재이다. 작가를 밝히는 체재로 편찬된 가집은 51종인데 그 중 27종에서 <구름이>의 작가를 이존오로 밝혔다. 21종에서는 작가 미상으로 처리하고 『靑丘永言』(淵民本) 1종에서만 鄭澈을 작가로 밝혀 놓았다. 또

5) 국문학계 바깥의 연구로 오종일, 「려말 의리정신과 이존오의 충절의식」, 『범한철학』 27, 범한철학회, 2001, 21~37쪽이 있다.

한 시조 대중화에 기여한 가집 가운데 비교적 이른 시기(영조 4년, 1728년)에 편찬된 『靑丘永言』(珍本)에서는 작가 미상으로 처리하였다. 그보다 조금 앞선 시기에 편집[6]된 『甁窩歌曲集』에서는 작가를 이존오로 밝혀 놓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석탄집』이 편찬될 무렵에 대중문화 레퍼토리로 수용되던 <구름이>는 작가 여하가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았거나 명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작가를 명시한 가집의 기록은 결정적인 반증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구름이>의 작가를 이존오로 간주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대중문화 공간에서 <구름이>가 다음 3종의 텍스트로 유통된 만큼, 그 가운데 어느 것이 이존오가 창작한 것일지에 대한 논의는 보완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구름이 無心튼 말이 아ᄆᆞ도 虛浪ᄒᆞ다
中天에 ᄯᅥ 이셔 任意로 단이면서
구타야 光明ᄒᆞᆫ 날빗출 ᄭᅳ라가며 덥ᄂᆞ니
(#0411.1; 『甁窩歌曲集』 #0053)

㉡ 구ᄅᆞᆷ이 無心탄 말이 아마도 虛浪ᄒᆞ다
中天에 ᄯᅥ 이셔 任意로 ᄃᆞ니면서
구ᄐᆞ여 光明ᄒᆞᆫ 날빗츨 더퍼 무ᄉᆞᆷ ᄒᆞ리오
(#0411.1; 『東歌選』 #0019)

㉢ 구름이 無心탄 이 말이 아마도 虛事로다
中天에 ᄯᅥ 이셔 任意로 닷니면서
엇지타 光明ᄒᆞᆫ 날빗츨 가릴 쥴이 이시랴
(#0411.1; 『靑丘永言』(淵民本) #0204)

64종 가집에 66회 수록 빈도를 보이는 <구름이> 텍스트는 제3행의

6) 편찬 시기와 이형상의 편집 시기 사이에 다소의 시간적 간극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형상 사후에 창작된 작품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차이에 따라서 ㉠~㉢의 세 유형으로 분류된다. ㉠은 13종, ㉡은 49종, ㉢은 4종의 가집에 각각 수록되었다. 『靑丘詠言』(伽藍本)에는 ㉠과 ㉡ 유형이 함께 실렸는데, ㉠ 유형 텍스트(#0164)의 작가는 미상으로 처리하고 ㉡ 유형 텍스트(#0374)의 작가는 이존오로 밝혀 놓았다. 그와 반대로 역시 ㉠과 ㉡ 유형을 함께 실고 있는 『樂府』(羅孫本)에서는 ㉠ 유형 텍스트(#0370)의 작가는 이존오로 밝혀 놓고 ㉡ 유형 텍스트(#0055)의 작가는 미상으로 처리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있어도 이존오를 작가로 밝힌 가집이 ㉠과 ㉡ 유형만을 수록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에 비해, ㉢ 유형에 속하는 작품 중에서 이존오를 작가로 밝혀 놓은 가집은 전혀 없다. 鄭澈을 작가로 밝혀 놓은 가집에 실린 텍스트는 ㉢ 유형에 속한다.[7] 그런데 ㉢은 '덮다'는 행위가 실제로 일어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어 ㉠㉡과는 의미론적으로 대립적 성격을 띠고 있다. 더욱이 ㉢은 텍스트 자체의 의미론적 통일성도 현저하게 결여되어 있다. 제1행은 '구름이 無心하다는 말'에는 동작과 관련한 말이 전혀 없음에 비해 '虛事'에는 비록 '쓸데없는[虛]'이란 수식어가 붙기는 하였지만 동작과 관련한 내용('일[事]')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구름이 無心하다는 말이 아마도 虛事이다'는 의미론적 통일성이 심각하게 결여된 진술이라 할 수 있다.

물론 '虛事'는 제2~3행과는 연관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제2~3행에서 햇빛[日光]을 덮는(또는 가리는) 행위는 하나마나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확신은 '구름이 無心하다'는 말을 부정하는 것과 의미론적으로 相馳된다. '구름이 無心하다'는 말에는 구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함축되어 있음에 반해, '虛事'는 비록 의미론적 통일성은 결여되어 있을지라도 '구름이 無心하다는 말'을 부정하고자 하는 태도가 함축되어 있다. 또한 제2~3행

7) 통계적 수치는 김흥규 · 이형대 · 이상원 · 김용찬 · 권순회 · 신경숙 · 박규홍 편저, 『고시조대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 84~85쪽에 기초함.

에 진술된 행위는 ‘구름이 無心하다’는 말과 상반된다. ‘無心’하지 않은 행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줄이 이시랴’는 그런 행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러한 확신은 결과적으로 ‘구름이 無心하다는 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되레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들은 ㉢의 수용자가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언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음을 말해 준다. 특히 ‘구름이 無心하다’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 유형 텍스트들이 <구름이>가 대중문화 레퍼토리로 유통되면서 변형된 것일 가능성을 시사한다.[8] 따라서 1종의 가집에서 鄭澈을 작가로 밝혀 놓았다는 사실이 <구름이>의 작가가 이존오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 유형은 49종(49회)의 가집에 수록되었는데, 그 중 작가를 밝히지 않은 체재로 편찬된 15종의 가집을 제외한 34종의 가집 가운데 23종에서 작가를 이존오로 밝혀 놓았다. 작가를 명시하여 수록한 빈도만을 고려할 때 ㉡ 유형의 텍스트가 이존오가 창작한 <구름이>에 가까운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듯하다.[9] 그런데 ㉡ 또한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과 마찬가지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제1행에서 ‘구름이 無心하다’는 말이 실상에 맞지 않다는 주장(판단)을 제시한 만큼 제2~3행에서는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제시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구름이 날빛[日光]을 따라다니며 덮는 행위는 쓸데없는 일이므로 자행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고 반문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 또한 의미론적 통일성이 결여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

8) 이러한 몰이해 현상은 대중문화 수용에서 흔히 목격된다.

9) 安廓, 『朝鮮文學史』, 韓一書店, 1922, 64쪽; 趙潤濟, 『朝鮮詩歌史綱』, 東光堂書店, 1937, 124쪽; 李秉岐・白鐵, op. cit., 100쪽; 이병기・백철, 『표준 국문학사』, 신구문화사, 1957, 64쪽 등에서는 ㉡ 유형의 텍스트를 인용하였지만, 沈載完 편저, 『歷代時調全書』, 世宗文化社, 1973, 100쪽(#293); 鄭炳昱, 『時調文學事典』, 新丘文化社, 1982, 57쪽(#224) 등에 ㉠ 유형의 텍스트가 異本 비교 기준 텍스트로 거듭 제시된 이후에는 ㉠ 유형의 텍스트가 주로 인용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제2~3행의 진술에만 초점을 맞출 때 ㉡이 ㉢과 의미론적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의 "무슴 하리오"는 ㉢의 "~쥴이 이시랴"와 마찬가지로 그 앞의 사태가 실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태도를 함축하고 있다. 이것은 ㉢의 제2~3행과 마찬가지로 ㉡의 제2~3행에도 ㉢의 '虛事'라는 판단이 전제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사성은 ㉡과 ㉢이 파생 관계에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65종의 가집 중에서 4종의 가집에서만 "虛浪ᄒᆞ다"를 "虛事로다"로 대체한데다, 그 말은 그 앞의 말 곧 "구름이 無心튼 말"과 의미론적 연관성이 전혀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 유형에서 ㉡ 유형이 파생되기보다는 ㉡ 유형에서 ㉢ 유형이 파생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 유형의 텍스트가 가집 수록 빈도나 작가를 이존오로 밝힌 빈도는 높아도 텍스트의 의미론적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 유형 또한 이존오의 시조 텍스트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徐居正(1420~1488)은 "고려 5백년 역사에서 간관은 이존오뿐"[10]이라고 극찬하였다. 그렇게까지 평가된 인물이 의미론적 통일성이 결여된 텍스트를 만들었을 개연성은 없어 보이는 것이다.

㉠ 유형은 13종의 가집에 수록(13회)되었고, 그 가운데 5종의 가집[11]에서 이존오를 작가로 밝혀 놓았다. 가집 수록 빈도나 작가 명시 빈도에서 ㉡ 유형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작가를 밝히는 체재로 편찬된 가집(5종)에서는 예외 없이 이존오를 작가로 밝혀 놓았다. 더욱이 ㉡, ㉢과 달리 ㉠은 의미론적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 제1행에서 '구름이 無心하다'는 말이 거짓이라는 주장(판단)을 제시하고 제2~3행에서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모든 어휘들이 주장과 근거의 관계를 중심으로 결합되어 있다. 이 점은 ㉠ 유형의 수용자 혹은 전승자가 텍스트를 이루고 있는 어휘들의 의미론적 관계를 명확하

10) 『石灘集』 下, 附錄, 「麗史提綱」: "高麗五百年間, 諫官一人而已."
11) 『歌詞』(權純會本) #0262; 『南薰太平歌』(民俗博物館本) #0004; 『甁窩歌曲集』 #0053; 『詩餘』(金善豊本) #0015; 『樂府』(羅孫本) #0370.

게 이해하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따라서 ㉠ 유형에 속하는 <구름이>를 이존오의 시조로 확정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할 수 있다.[12)]

이처럼 ㉠ 유형에 속하는 텍스트를 이존오가 지은 작품이라고 하면, <구름이>의 독법은 기본적으로 주장(판단)-근거(이유)로 짜인 텍스트의 의미론적 통일성과 맞닿아 있는 맥락을 추론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선행 독법과 교과서적 해설의 문제점

<구름이>는 安廓에 의해 고려 말기 '儒派의 詩歌'의 하나로 인용[13)]된 이후에 여러 연구자에 의해 주석과 해석이 시도되었다. 주석과 해석에서 관건으로 인식된 것은 '구름'과 '光明한 날빛[日光]'의 지시대상을 추론하는 일이었다. 작가가 문제 삼고 있는 대상이 '구름이 光明한 날빛을 따라 다니며 덮는 상황'으로 집약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음 [표]는 그 추론이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달리 이루어졌음을 보여 주고 있다.

〔표〕 '구름'과 '(光明한) 날빛'의 지시대상 추론 양상

구분	구름	(光明한) 날빛	작품 해석
趙潤濟[14)]	姦淫之臣들	님금의 聰明	①
秦東赫[15)]	奸臣	왕의 聰明	-
조동일[16)]	신돈	공민왕	②
李廷倬[17)]	妖僧辛旽의 橫暴	聖聰	③

12) 조동일은 "마지막 구절은 「덥허 무슴 ᄒᆞ리요」라고 한 곳이 많으나, 「ᄯᆞ라가며 덥ᄂᆞ니」라고 하는 편이 구름에 대한 원망을 강하게 나타낸다."라는 이유를 들어 수록 빈도가 높은 ㉡ 유형의 텍스트가 아닌 ㉠ 유형의 텍스트를 이존오의 시조로 인용하였지만(『한국문학통사』 2, 지식산업사, 1985(1983), 196쪽), ㉡ 유형의 텍스트가 의미론적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까지 주목하지는 않았다. "구름이 無心튼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13) 安廓, op. cit., 64쪽.

김동욱[18]	신돈	공민왕	④
김대행[19]	小人(奸臣)	어진 임금	-

趙潤濟는 이존오가 "氣慨가 絶倫하야, 그의 時調로 남은 一節에도 能히 그의 情調를 살필수 있다"라고 전제하고 <구름이>는 "그가 姦淫之臣이 모아 들어 님금의 聰明을 가리워 政治가 腐敗하여가는 것을 槪嘆한 것"(①)이라고 해석하였다. 당대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寓意的(allegoric)으로 표현하였다고 본 것이다. 秦東赫은 趙潤濟의 추론과 해석을 수용하되 '구름'을 '姦淫之臣들'이 아닌 奸臣으로 特定함으로써 <구름이>가 辛旽 개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담아낸 작품으로 해석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憂國時調'로 분류하였다. 李廷倬은 <구름이>가 辛旽 개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로 읽되 '구름'이 곧 辛旽이 아니라 辛旽의 橫暴가 자행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다. 趙潤濟가 辛旽을 비롯한 '姦淫之臣들'에 의해 부패해진 당대 정치 현실을 싸잡아 비판한 것으로 보았다면, 李廷倬은 "辛旽이 聖聰을 가리어 專橫함을 諷刺한 것"(③)이라고 해석함으로써 辛旽 개인을 비판하는 데 초점이 놓인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秦東赫, 李廷倬은 핵심적인 시적 상황이 현실 정치 상황을 寓意하고 있다고 보면서도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서는 趙潤濟와는 좀 다른 견해를 드러내기도 한 것이다.

유사한 차이가 다른 연구자의 독법에서도 나타났다. 조동일은 '구름'과 '날빛'을 각각 辛旽과 恭愍王으로 특정하였는데 이 추론 결과는 김동욱에 의해 수용되었다. 그에 비해 金大幸은 '구름'과 '날빛'을 '小人'과 '仁

14) 趙潤濟, op. cit.(1937), 124쪽.
15) 秦東赫, 『古時調文學論』, 螢雪出版社, 1988(1976), 124~125쪽.
16) 조동일, op. cit., 196쪽.
17) 李廷倬, 「時調史硏究 <1>」, 『安東大學 論文集』 10, 安東大學, 1988, 8쪽.
18) 김동욱, 「石灘 李存吾의 士大夫意識과 詩歌」, 『泮橋語文硏究』 2, 泮橋語文學會, 1990, 187쪽.
19) 김대행 역주, 『시조』 Ⅰ,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93, 21쪽.

君'으로 각각 추론함으로써 선행 독법에서와는 또 다른 견해를 제시하였다.[20] 이러한 차이가 생겨난 직접적 원인은 추단하기 어렵다. 다만 어떤 주석과 해석도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조동일의 다음과 같은 문제 제기는 그 점을 분명하게 확인해 주고 있다.

> 이존오는 공민왕 때에 신돈(辛旽)을 규탄하다가 죽을 고비를 겪고 시골로 은거했다가 젊은 나이로 울분 때문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다. 그렇다면 햇빛으로 공민왕을, 구름으로 신돈을 가리키고, 노래 전체를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에다 빗대어서 지은 것 같으나, 뜻하는 바를 그렇게 한정하기에는 구름이 무심하다는 전제가 다소 마땅하지 않다. 자연과 정치를 함께 노래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게 하려다가 얼마쯤 어긋난 결과를 얻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듯하다.[21]

앞의 어느 주석이나 해석에서도 '구름이 無心하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말을 왜 인용했는지, 그리고 그 말이 거짓임을 굳이 증명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구름이 無心하다'는 진술에서 '구름'을 '姦淫之臣들', '奸臣', '奸臣 辛旽의 橫暴', '辛旽', '小人(奸臣)' 등으로 추론하는 것이 타당하려면 그러한 추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물론 '구름이 無心하다'는 것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도 해명해야 한다. 하지만 어느 주석도 추론 과정이나 '無心'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구름이 無心하다'는 것을 '전제'라고 한 진술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그 말이 가리키는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구름이 無心하다'는 말은 전제가 아니라 작가가 부정하고자 하는 주장의 핵심 내용을 간명하게 표현한 진술이다. <구름이>는 이 명제를 부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구름이 無心하다'는 말이 거짓이라는 주장(판단)은 곧 '구름이 無心하지 않다'는 말이 참이라는 주장(판

20) '小人(奸臣)'과 '仁君'이 각각 辛旽과 恭愍王으로 읽힐 것을 염두에 둔 주석이라면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21) 조동일, op. cit., 196쪽.

단)이다. 따라서 <구름이>의 함의는 작가가 왜 이러한 주장을 하고자 하였는지를 해명하는 데서 명료해질 수 있다. 결국 조동일의 문제 제기는 선행 주석과 독법에서 이 점을 명료하게 해명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셈이다.[22]

물론 김동욱은 시적 상황이 실제 세계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라고 판단함으로써 실제 자연 현상이 시적 대상이었을 수도 있다는 문제 제기가 합당하지 않다고 반박하였다. 나아가 "천지의 조화가 깨어진 자연적 상황"을 통해 "신돈의 행세가 임금을 미혹시킬 뿐 아니라 고려 왕실의 지반조차 뒤흔들고 있는" 상황을 빗대어 표현한 것(④)이라고 해석함으로써 우의적 독법의 결과라 할 수 있는 두 선행 해석(①③)을 통합적으로 수용하였다. 그런데 김동욱이 반박 근거로 <論辛旽疏>에서 가져온 "천지조화가 깨어진 자연적 상황"은 실제 세계에서 극히 드물지만 일어나기도 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김동욱의 반박 또한 타당한 근거를 갖춘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구름이>의 언어가 실제 세계의 특정 상

22) 조동일의 문제 제기에 공감한 듯 보이는 최근의 해설 가운데에는 오늘날 독자에게 수용 가능한 맥락을 더 중요하게 고려한 것도 있다.
"이 시조를 단순히 고려말 정치상황과 연결시키기에는 그 함의는 녹록치 않아 보인다. 꼭 태양을 임금의 비유로만 보아야 할 것인가. 시어가 가지고 있는 다의성, 그리고 그 모호성을 생각해 볼 때 이 시조는 마음에 관한 노래로도 읽을 수 있다. 내 마음 한 구석에 있는 태양과 같은 뚜렷한 목표,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기에 언제나 그 목표만을 보고 달려갈 수는 없다. 마음 한 가운데를 임의로 떠다니는 수많은 불안감, 걱정, 개인적 문제, 사회적 상황 등은 저 빛나는 태양과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마음을 아무 때나 가려버린다. 마음 속을 떠다니는 작은 생각들은 실상 구름처럼 무심한 듯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스스로 생각했던 목표를 잃어버리도록 가려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던가.
구름에 가린 태양이라도, 광명한 날빛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그 구름이 걷히고 나면 다시 찬란하게 빛나는 건 당연한 이치다. 우리 마음도 그랬으면 좋겠다. 잠시 잠깐 올바른 판단을 막아서는 작은 구름들을 걷어내고 나면 다시금 마음의 찬란한 태양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김진영 · 정병헌 · 정운채 · 조세형 · 조해숙 · 최재남, 『한국시조감상』, 국어국문학회, 2012(2011), 30~31쪽.

황 특히 정치적 상황을 우의하고 있다는 전제는 여전히 그 타당성을 증명해야 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구름이>에 대한 교과서적 해설은 열거한 우의적 독법의 결과들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에서 마련되었다. 무엇보다 趙潤濟의 해석이 가장 이른 시기부터 교과서적 해설로 수용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현재 <구름이>를 학습 제재로 수용하고 있는 중등 이하 교육과정의 교과서는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이전 교과서에서 수록되어 학습 제재로 활용된 적이 있는 작품은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습자라면 언제나 알고 있어야 하는 작품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지배적이다. 그런 까닭에 <구름이>처럼 학습 제재로 사용된 적이 있는 작품에 대한 해설은 각종 참고서나, 특히 오늘날에는 가상공간의 각종 사이트나 블로그를 통해 전파되고 있다. 그 중 몇 사례를 인용해 보면 그 해설 또한 선행 독법과 마찬가지로 <구름이>를 <論辛旽疏>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 구름에게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말이 아무래도 믿기 어려운 허황된 말이로다. 구름은 하늘 한복판에 번듯이 떠서 멋대로 돌아다니며 짓궂게도 밝은 햇빛을 쫓아다니면서 덮어 버린다. 말할 것도 없이 그 구름은 의뭉한 요승 妖僧 신돈이요, “광명한 날빛”은 왕의 총명을 비유한 것이다. 비유가 아주 적절하기 이를 데 없어, 지은이의 곧은 성격을 엿볼 수 있다. 기막힌 풍자다. “중천에 떠 있어 임의로 다니면서”라는 구절은 신돈의 권세와 방자함을 매우 적절하게 표현한 부분이고, “광명한 날빛을 따라가며 덮나니”는 신돈의 행패를 신랄히 꾸짖은 구절이다. 정의의 저항운동이 뱃속에서, 몸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왔기에 이런 형상화가 가능해지는 것이다.[23]

> ㉯ 이존오가 우정언의 직책에 있을 때, 공민왕의 신임을 등에 업고 국정을 전횡하며 풍속을 어지럽히는 신돈의 무리들을 탄핵하다가 장사

23) 김종오 편저, 『겨레얼 담긴 옛시조감상』, 정신세계사, 1990, 275쪽.

(전라도 무장, 현 전라북도 고창) 감무로 좌천되었다. 뒤에 향리인 공주의 석탄(石灘)에 돌아와서도 나라를 걱정하였는데, 이 시조는 곧 신돈을 위시한 간신배들이 아직도 임금의 총명을 흐리게 하며 국정을 농단하는 것을 비난하여 읊은 것이다. 평시조 3장으로, 초장은 국정을 어지럽히는 간신배들을 구름에 빗대고, 중장은 횡포를 자행하는 모습을, 종장은 임금의 총명을 가리는 행동을 나타낸 것이다. 초장은 구름이 아무 생각 없이 떠다닌다는 말이 아무래도 믿기지 않는다고 하여, 소인과 간신배들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이라 의심한다. 중장은 그들이 거칠 것 없이 횡포를 자행하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종장에서는 끝내 임금을 속여서 장차 어떻게 하려느냐고 그들을 비난하면서 동시에 나라 걱정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24]

㉰ 간신배들이 왕의 총명을 가리는 것을 하늘에 떠가는 구름이 햇빛을 가리는 것에 빗대어 표현한 작품이다. 이 시조의 지은이인 이존오는 고려 말의 문신(文臣)으로, 승려 신돈(辛旽)의 횡포를 탄핵하다가 공민왕의 노여움을 사기도 했다. 이 시조는 이존오가 공민왕의 노여움을 사서 좌천되었을 때 쓴 것이라 한다. 초장에서는 하늘에 떠가는 구름이 무심하다는 말이 허무맹랑하다고 한다. 무심하다는 것은 나쁜 마음이 없다는 뜻이며, 허랑하다는 것은 허무맹랑하여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구름에게 나쁜 마음이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뜻이다. 그렇게 생각한 까닭이 중장과 종장에 밝혀져 있다. 그 까닭은 구름이 하늘 가운데 떠 있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다니는 것 같은데 굳이 햇빛을 따라가면서 가리기 때문이다. 구름에게 나쁜 마음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승려인 신돈 때문이다. 신돈은 승려이므로 나쁜 마음이나 사사로운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신돈은 하늘에 떠가는 구름처럼 무심(無心)한 존재여야 한다. 그런데 신돈은 공민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벼슬도 하고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무심한 구름과 같은 존재여만 하는 신돈이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었다는 것은 무심하지 않다는 증거이다. 또한 신돈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왕의 총명함을 흐리게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왕의 총명함을 뜻하는 햇빛을 구름이 따라가며 가렸다고 한 것이다. 이 시조

24) 백원철, 「구름이 무심탄 말이」, 한국향토문화대전.
(http://www.grandculture.net/ko/Contents?dataType=01&contents_id=GC01702550)

는 고려 말 신돈이 공민왕의 총애를 받아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 것을 풍자한 작품이다. 이 시조에서 '구름'은 신돈을, '날빗'은 왕의 총명함을 뜻하므로 '구름'이 '날빗'을 가렸다는 것은 신돈이 왕의 총명함을 흐리게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이 시조의 주제는 신돈의 횡포를 풍자함이라 할 수 있다.[25]

㉮ 고려 말엽 요승(妖僧) 신돈(辛旽)이 공민왕의 총애를 받아 진평후(眞平侯)라는 봉작까지 받아가면서 공민왕의 총명을 흐리게 하고, 국정을 어지럽힘을 한탄하여, '구름'을 '신돈'으로 '날빛'을 '공민왕'으로 풍자하여 지은 시조이다. 당시 정언(正言)으로 있던 작자가 신돈을 비난하는 상소문을 올렸다가 투옥되었는데, 이 때의 작품이 아닌가 한다.[26]

'구름'은 '신돈'(㉮㉰㉮) 혹은 '소인과 간신배들'(㉯)을, '날빛'은 '왕의 총명'(㉮㉯㉰) 혹은 '공민왕'(㉮)을 각각 지시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는 데서 현재 통용되고 있는 <구름이>에 대한 해설이 선행 독법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특히 밑줄 친 부분은 선행 독법과의 연관성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모두 趙潤濟의 해석의 자장 안에서 약간의 편차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물론 한 가지 중요한 차이도 있다. 그것은 ㉮~㉰에서 '無心'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無心'에 대해 ㉮㉯에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음'으로 풀이하고 ㉰에서는 '邪心 곧 나쁜 마음이 없음'으로 풀이하고 있는데, 이러한 풀이는 선행 독법에서는 전혀 보여주지 않았던 것이다. 아마도 텍스트를 학생 혹은 대중의 눈높이에서 이해하도록 하자면 '구름이 無心하다'는 말에 대한 해설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에 포함된 '無心'에 대한 주석은 선행 주석에서 보여준 '구름'과 '날빛'에 대한 추론과 마찬가지로 자의적일 뿐이다. 그런데도 <구름이>에 대한 교과서적

25) 박인희, 「구름이 무심탄 말이」, 낯선 문학 가깝게 보기: 한국고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411954&cid=41773&categoryId=44404)
26) 꽤 많은 블로그에 출처를 밝히지 않고 탑재되어 있는 해설이다.

해설은 ㉮~㉱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선행 독법이나 교과서적 해설은 <구름이>가 '주장(판단)-근거'로 짜여 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았다. 그런 까닭에 작가의 결론적인 주장이 '구름이 無心하다'는 일반적인 주장(판단)이 특정 사례에서는 거짓일 수 있음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모아져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지 못하였다. <구름이>의 독법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구름이 無心하다'는 말을 인용하고 그것이 거짓임을 애써 증명하고자 한 까닭을 밝히는 일인데, 신돈 혹은 신돈을 重用한 공민왕, 혹은 그로 인한 국정 혼란 등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태도를 읽어내는 데 초점을 두었을 뿐이다. 주장(판단)보다 그 근거에 더 초점을 맞추어 읽은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존오는 <論辛旽疏>를 통해 辛旽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그런 그가 똑같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 <구름이>를 창작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신돈이나 신돈에 의해 초래되는 문제적 현상에 대한 비판에 초점이 놓였다면 비판의 강도는 <구름이>보다 <논신돈소>가 훨씬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제기한 의문과 관련하여 우리는 <구름이>가 소통하고자 하는 대상의 범위나 인물을 비판하는 관점과 준거에서 <논신돈소>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논신돈소>는 국왕을 비롯해 당시 조회와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 참석한 신하들까지 독자(혹은 청자)로 설정한 것이다. 이존오는 자신과 같은 간관이 올린 상소라면 代讀 방식으로 그런 자리에서 朗讀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실제 공민왕은 代言 權仲和로 하여금 <논신돈소>를 대독하도록 하였다.[27] 그에 비해 <구름이>에 잠재된 청자(혹은 독자)의 범위는 <논신돈

27) 상소는 반도 채 읽히지 못하고 불태워졌다(『高麗史』 112卷 列傳 25 李存吾: 疏上命代言權仲和讀之. 讀未半王大怒遽命焚之.)고 한다. 그런 만큼 이존오의 생각이 독자(청자)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논신돈소>는 신돈의 행위가 국가 사회 질서의 근간이 되는 예법에 어긋난 행위임을 반복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전반부만 읽거나 들어도 핵심 의도를 파악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불태워진 상소의 전문이 『고려사』에까지 기록되었다면 그 글이 다른 경로를 통해 당초의 독자들에게 전달되었을 가

소>보다 훨씬 더 넓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말은 문자 해독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 사이의 소통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름이>는 <논신돈소>보다 소통의 대상 범위가 한층 더 넓게 설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논신돈소>에 잠재된 독자 혹은 청자의 범위가 君臣이라면 <구름이>의 청자 혹은 독자는 人民에게까지 확장될 수 있는 것이다. 이존오가 <구름이>를 창작할 때에 이 점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면 <구름이>가 <논신돈소>와 그 창작 의도가 동일하다고 볼 수만은 없을 것이다.

비판의 관점 혹은 준거의 차이 또한 소통 대상의 범위의 차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보인다. <논신돈소>에서 이존오가 비판하는 초점은 신돈이 국가 사회의 질서 혹은 기강 유지에 근간이 되는 '禮'를 무시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은 인물이라는 데 두어졌다. 이 점은 <논신돈소>에 '禮'라는 글자가 10회 반복 사용된 사실[28]이나 왕 앞에 불려

능성도 없지 않다.

28) 『高麗史』 112卷 列傳 25 李存吾: "臣等伏値三月十八日於殿內設文殊會, 領都僉議辛旽, 不坐宰臣之列, 敢與殿下並坐閒不數尺, 國人驚駭罔不洶洶. 夫**禮**所以辨上下定民志. 苟無**禮**焉, 何以爲君臣何以爲父子何以爲國家乎? 聖人制**禮**, 嚴上下之分, 謀深而慮遠也. 竊見旽過蒙上恩專國政, 而有無君之心. 當初領都僉議判監察命下之日, 法當朝服進謝, 而半月不出, 及進闕庭, 膝不少屈. 常騎馬出入紅門, 與殿下並據胡床, 在其家宰相拜庭下, 皆坐待之. 雖崔沆・金仁俊・林衍之所爲, 亦未有如此者也. 昔爲沙門當置之度外, 不必責其無**禮**, 今爲宰相名位已定, 而敢失**禮**毁常若此? 原究其由必托以師傅之名. 然兪升旦, 高王之師, 鄭可臣, 德陵之傅, 臣等未聞彼二人者敢若此也. 李資謙, 仁王之外祖. 仁王謙讓欲以祖孫之禮相見, 畏公論而不敢, 盖君臣之分素定故也. 是**禮**也, 自有君臣以來亘萬古而不易, 非旽與殿下之所得私也. 旽是何人, 敢自尊若此乎? 洪範曰: '惟辟作福, 惟辟作威, 惟辟玉食. 臣而有作福作威, 玉食必害于家凶于國. 人用側頗僻民用僭忒.' 是謂臣而僭上之權, 則有位者, 皆不安其分, 小民化之, 亦踰越其常也. 旽作福作威, 又與殿下抗**禮**, 是國有兩君也. 陵僭之至, 驕慢成習, 則有位者, 不安其分, 小民踰越其常. 可不畏哉? 宋司馬光曰: '紀綱不立, 奸雄生心.' 然則**禮**不可不嚴習, 不可不愼. 若殿下必敬此人, 而民無灾禍, 則髡其頭, 緇其服, 削其官, 置之寺院而敬之. 必用此人, 而國家平康, 則裁抑其權, 嚴上下之**禮**, 以使之民志定矣, 國難紓矣. 且殿下以旽爲賢. 自旽用事以來, 陰陽失時, 冬月而雷, 黃霧四塞, 弥旬日黑子夜赤祲, 天狗墜地木冰太甚. 清明之後, 雨雹寒

나왔을 때 신돈을 향해 큰 소리로 '無禮함'을 힐책한 사실[29]에서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禮를 준거로 한 비판은 이존오가 국가사회 지배층의 관점을 견지했음을 말해 준다. 그에 비해 <구름이>에서의 초점은 군주의 은혜가 인민에게 미치지 못하게 가로막는 인물이라는 데 두어져 있다. 하늘의 해는 국가 사회의 군주에 대응하고 그 빛 곧 天恩 혹은 天惠는 君恩 혹은 聖恩에 대응한다. 臣民은 君恩 혹은 聖恩을 받아 살아간다. 따라서 <구름이>에서 이존오는 비판의 관점을 인민도 공감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라 할 수 있다.

禮는 유학이 몸에 익은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일지 몰라도 인민들에게는 심각하거나 절실한 문제로 와 닿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예법 준수 여부를 준거로 한 신돈 비판은 인민들에게까지 공감을 얻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 그에 비해 인민들은 자신들이 곤궁하게 살아가는 원인을 신돈이 제공하고 있다고 하면 신돈에 대해 반감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이존오의 비판에 동조하게 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이처럼 비판의 관점이 인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바꾸었다면 이존오가 <구름이>를 창작한 의도를 선행 독법이나 교과서적 해설에서와 같이 <논신돈소>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Ⅳ. 텍스트의 분석과 창작 맥락 추론

창작 방법의 측면에서 다른 연구자들이 하나같이 <구름이>가 '比'로 창작된 작품이라고 보았다면, 조동일은 '興'으로 창작되었을 가능성을 열

風, 乾文屢變, 山禽野獸, 白日飛走於城中. 旽之論道燮理功臣之號, 果合於天地祖宗之意乎? 臣等職在諫院, 惜殿下相非其人將取, 笑於四方, 見譏於萬世, 故不得嘿嘿, 庶免不言之責. 旣以言矣, 敬聽所裁."

29) 『高麗史』 112卷 列傳 25 李存吾: 召樞存吾面責. 時旽與王對床. 存吾目旽叱之曰: "老僧何得**無禮**如此." 旽惶駭不覺下床.

어두고자 하였다. ‘比’란 드러내고자 하는 생각이나 감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시가 창작 방법이다. 이때의 생각이나 감정은 시적 대상이 된 사물이나 현상에서 촉발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촉발된 생각이나 감정은 주로 ‘興’의 방법으로 표현된다. ‘比’로 창작된 시가나 ‘興’으로 창작된 시가는 모두 사물이나 현상이 시적 상황을 구성한다. ‘興’으로 창작된 시가와 달리 ‘比’로 창작된 시가에서 시적 상황을 구성하고 있는 사물이나 현상은 작가의 시가로 표현된 생각이나 감정을 촉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 작가가 의도적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구름이>가 ‘比’로 창작되었다면 제1행의 주장을 펴기 위해 제2~3행의 시적 상황을 만든 것으로 보아야 하고, ‘興’으로 창작되었다면 제2~3행의 시적 상황에 상응하는 실제적 경험 상황에서 제1행의 생각(주장)을 떠올렸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구름이 無心하다’는 진술 자체가 비유적 진술(寓意)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구름이>가 ‘興’의 방법으로 창작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구름이>가 ‘賦’의 방법을 아울러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그 가능성이 한층 더 낮다는 것을 말해 준다. ‘賦’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일이나 현상을 서술하는 방법이다. 오롯이 부의 방법에 의해 창작된 시를 현대문학에서는 서술시(narrative poetry)로 분류하고 있다. 서술시는 실제 목격한 일이나 현상을 서술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이나 현상을 서술할 수도 있다. 실제적인 일이나 현상이 작가로 하여금 독특한 생각이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그러한 경험을 시가로 표현할 때에는 ‘賦而興’의 방법을 쓴다. 그에 비해 가상적인 일이나 현상은 오롯이 작가에 의해 창조되는 것이다. 작가는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일이나 현상은 아니지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하고 전달하기 위해 있을 법한 일이나 현상을 만들어낸다. 그런 점에서 가공된 일이나 현상을 서술한 ‘賦’는 선차적으로 ‘比’의 특성을 갖게 마련이다. ‘구름이 광명한 날빛[日光]을 따라가며 덮는 현상’은 작가가 마주한 대상의 상황이라기보

다는 작가의 생각이나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 가공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경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 가능성이 없다면 가공할 수도 없고 그 상황을 통해 독자(혹은 청자)에게 작가의 감정이나 생각을 전할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름이 無心하다'는 진술에서의 '구름'과 제2~3행에 서술된 행위의 주체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구름이>는 '賦而興'이나 '興而比'가 아니라 '比而賦'의 방법으로 창작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比而賦'로 창작된 시가이기 때문에 <구름이>의 해석에서는 서술된 일 혹은 현상에 대응하는 현실 세계에서의 일 혹은 현상이 무엇인지를 추론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구름이>에서 형상화된 현상은 천문적이다. 천문적인 현상이 사회적인 현상과 상동관계(homology)에 놓인다는 관념은 유학자들만이 아니라 신민들에게도 널리 공유되고 있었다. 이러한 관념 속에서 해는 하늘 세계의 중심인 동시에 인간 사회의 중심을 상징한다. 인간 사회의 중심은 곧 군주이다. 하늘 세계가 해를 중심으로 뭇별들이 위계질서를 이루고 있듯이 인간 사회도 군주를 중심으로 위계질서를 이룬다. 그런데 구름은 하늘의 질서 체계에서 정해진 자리를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정해진 자리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집착은 욕심에서 생겨나고 욕심이 없으면 집착도 없는 법이다. 그런 까닭에 구름은 하늘의 질서 체계에 상응하는 질서 체계를 이루고 있는 인간 사회에서 고정된 자리를 갖고 있지 않은 존재를 상징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햇빛이 없으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다. 햇빛은 인간에게 내리는 하늘의 은혜인 동시에, 인민에게 내리는 군주의 은혜를 상징한다.[30] 구름은

30) <구름이>의 제2~3행에서 "임금의 덕화를 백성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는" 인물 형상을 읽어낸 것은 이태극, 『우리의 옛 시조』, 경원각, 1984, 16쪽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태극은 작가의 의도가 "간신(신돈)의 횡포"를 드러내는 데 있다고 봄으로써 선행 독법을 대체로 수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형에 속하는 텍스트

이따금 해를 가려 인간 사회에 햇빛이 비치는 것을 가로막기도 한다. 구름이 햇빛을 가리는 현상은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다. 이따금씩 햇빛을 가리기도 하지만, 그 때문에 햇빛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게도 한다. 그런 까닭에 유학자들은 '雲影天光' 곧 구름과 해가 서로 어울려 그림자와 빛이 뒤섞여 있는 형상을 진리가 奧妙하게 구현된 세계에 대한 상징으로 이해하였다.[31] 조금만 더(혹은 항상) 벗어나면 질서가 파괴되지만 그렇지 않아서 질서가 유지되기에 오묘하다고 한 것이다.

고정된 자리가 없이 천문의 세계를 이리저리 이동하는 구름은 '閑雲'이라고도 일컬어졌다. '閑雲'은 때로는 산꼭대기에 걸려 있기도 하고 해를 가리기도 하고 물 위를 떠가기도 한다. 그런 까닭에 '閑雲'은 好惡關係도 없고 利害關係도 없는 인물을 비유하는 말로도 썼다.[32] 승직 없는 승려와 같이 세속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수도에 정진하는 인물 또한 구름에 비유되곤 하였다. 淸雲, 白雲, 閑雲, 行雲 등이 세속적인 신분이나 지위, 이해관계를 초월한 인물들이 자신을 일컫는 이름(號 또는 法號)으로 사용해 왔음을 주지의 사실이다. 결국 '구름이 無心하다'는 말은 구름에 상응하는 인간 곧 세속적인 이해관계를 초탈한 사람이면 사사로운 慾心이 없다는 말인 셈이다.

그러고 보면 불교에서나 유학에서 '無心'은 모두 마음 수양의 최고 단계를 일컫는 말로 썼다. 마음 수양은 자기 내면에 자리한 욕심을 떨어내

를 인용한 것이 일정한 영향을 끼친 듯하다.) 학술적 형식의 글을 통해 발표된 것도 아니어서 교과서적 해설에 반영되지 않은 듯하다.

31) '운영천광(천광운영)'과 짝을 이루어 쓰이는 '魚躍鳶飛(鳶飛魚躍)' 또한 오묘한 진리가 구현되고 있는 세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후자는 "鳶飛戾天 魚躍于淵"(『詩經』)에서, 전자는 "天光雲影共徘徊"(朱熹의 시 <讀書有感>)에서 각각의 쓰임을 찾아볼 수 있다.

32) 李賢輔의 시조 <漁父歌>(短歌)에서 "山頭에 閑雲이 起ᄒᆞ고, 流水에 白駒ㅣ 飛라. 無心코 多情ᄒᆞ니 이 두 거시로다"라는 구절은 閑雲에 대한 유학자의 인식을 잘 보여 주고 있다. 慾心이 없어 多情하여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자유로이 떠돌아다니는 것이 閑雲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는 과정이다. 그 모든 욕심을 떨쳐낸 마음 상태가 곧 '無心'이다. 무심의 상태에 도달할 때 인간은 사물을 바로 볼 수 있어 사물의 이치를 올바로 깨달을 수 있다. 불교에 정진하는 사람도 어릴 적부터 유학을 하는 사람도 그런 마음이라야 진리[道]를 인식할 수 있다고 여겼다. 물론 인간이 그런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대에서부터 논란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마음 수양에 정진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공감하였다. 현실주의에 기초하는 유학을 배운 학자들이 無心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마음 수양에 정진했던 사례는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시가를 통해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33]

그렇다면 왜 이존오는 '구름이 無心하다'는 명제를 제시하고 그것이 거짓임을 굳이 드러내고자 하였을까? 다음 자료는 그 의문을 푸는 실마리를 갖고 있다.

> 처음에 왕(공민왕)이 재위한 지 오랜데도 재상들이 자기 뜻에 많이 맞지 않자, '世臣大族은 가까운 무리들끼리 얽어 서로 숨겨 주고, 草野新進은 정을 속이고 행동을 꾸며 명예를 구하다가 지위가 높아지고 이름이 알려지면 제 가문이 한미함을 부끄러워하여 大族과 혼인 관계를 맺고는 초심을 죄다 버린다. 또한 儒生은 유약하고 강직하지 못한데다 門生이니 座主니 同年이니 떠들면서 같은 무리끼리만 서로 가깝고 두터이 사귄다. 이 세 부류는 모두 쓰기에 부족하니, 세상을 벗어나 獨立한 이를 맞아다가 크게 쓰면 낡은 인습을 바꾸지 않는 폐단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였다. 신돈을 만남에 이르러서는 그가 得道하여 慾心이 적고 또 미천해서 가까운 무리가 없어 큰일을 맡기면 情에 따라 얽매이는 일이 없을 것이라 여겼다. 드디어 髡緇에서 뽑아다가 國政을 맡기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신돈에게 수행을 굽히고 세상을 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신돈이 겉으로 수긍하지 않음으로써 왕의 뜻을 굳게 만들었다. 왕이 강권하자 신돈은 "일찍이 왕과 대신들이 참소와 이간질을 잘 믿는다고 들은 적이 있사옵니다. 바라건대 이 같이 하지 않으셔야 세상이 복되고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왕은 곧 손수 맹

33) 임주탁, 『한국 고시가의 반성적 고찰』, 태학사, 2013, 130~131쪽.

> 세하는 말을 썼다. “대사는 나를 구하고 나는 대사를 구한다. 이로써 生死를 거니 다른 사람의 말에 미혹되지 않음을 부처와 하늘은 證明하소서.” 곧 더불어 모든 國政을 의논했다.[34]

공민왕은 국정 쇄신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지만 자신과 함께 그 일을 추진할 적임자를 물색하였다. 그런데 世族大臣, 草野新進, 儒生은 모두 기득권에 안주하거나 기득권을 획득하려는 욕망 곧 세속적인 욕망에 가득 차 있어 함께 국정을 쇄신할 적임자가 없다고 인식하였다. 공민왕이 신돈에 주목한 것은 신돈이 세속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국정 쇄신을 함께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인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민왕은 신돈이 마치 구름처럼 無心한 인물이라고 인식한 것이다. ‘구름이 無心하다’는 말이 공민왕의 주관적인 견해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널리 공감되어 왔던, 일종의 경구(epigram) 같은 말이었다. 공민왕은 그것을 신돈을 국정 동반자로 重用하는 논리로 활용하였던 것이다. <구름이>에서 ‘구름이 無心하다’는 말을 비판하고자 하는 명제로 제시한 까닭은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구름이>는 이 명제가 거짓이라는 주장(판단)을 먼저 제시하고, 이어서 구름이 무심하지 않은 실제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존오는 <논신돈소>에서는 이 논리를 전면 부정하지 않았다. 이는 앞의 기록에 서술된 공민왕의 판단 근거를 반박할 만한 근거가 없었다는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논신돈소>의 잠재적인 독자(혹은 청

---

34) 『高麗史』 卷132 列傳 45 叛逆 6 辛旽: 初, 王在位久, 宰相多不稱志, 嘗以爲世臣大族, 親黨根連, 互爲掩蔽; 草野新進, 矯情飾行, 以釣名, 及貴顯心門地單寒, 連姻大族, 盡弃其初; 儒生, 柔懦少剛, 又稱門生座主同年, 黨比徇情. 三者, 皆不足用. 思得離世獨立之人, 大用之, 以革因循之弊. 及見旽以爲得道寡欲, 且賤微無親, 比任以大事, 則必徑情無所顧藉. 遂拔於髡緇, 授國政而不疑. 請旽以屈行救世, 旽陽不肯, 以堅王意, 王强之. 旽曰: “嘗聞王與大臣, 多信讒間, 願勿如是, 可福利世間也.” 王乃手寫盟辭曰 “師救我, 我救師, 死生以之, 無惑人言, 佛天證明.” 於是, 與議國政.

자) 가운데 신돈을 제외하면 스스로 사적인 이해관계를 초월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인물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신돈 이외에 <논신돈소>를 낭독하는 자리에 참석한 이들은 世族大臣, 草野新進, 儒生 가운데 어느 하나로 분류될 수 있는 인물이었다. 따라서 이존오로서도 공민왕의 신돈 중용의 논리 자체를 정면에서 부정하기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존오 또한 세 부류 가운데 어느 하나에 속한 인물이었음이 분명하다.

<구름이>에서 구름이 햇빛을 가리는 행위는 예법과는 무관하다. 해의 빛은 만물에 비치어 생기를 불어넣는다. 햇빛이 없으면 만물은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 인민도 밝은 빛 곧 군주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제대로 살아가기가 어렵다. 구름이 햇빛을 따라다니며 덮는다는 말은 군주의 은혜[聖恩]가 신민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는 행위가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임을 나타낸다. 이처럼 구름이 신민에게 미치는 군주의 은혜를 차단하는 존재라면 '구름이 무심하다'는 말은 신돈에게 있어서는 참이 아닌 거짓이라 할 수 있다. '구름이 無心하다'는 명제는 일반적으로 참이다. 일반적으로 참이라고 인정되는 명제를 특정 反例를 통해 단호하게 부정할 수는 없다. 한자의 '蓋'에 대응하는 "아마도"는 일반화된 것은 아니지만 발화자의 관점에서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주장을 피력할 때 널리 쓰인다. '구름이 無心하다'는 명제가 항상 거짓이라면 공민왕이 신돈을 중용할 때 가진 판단의 준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된다. 그것은 군주의 당초 판단 자체가 문제적이라는 생각으로 확대되게 마련이다. 신민이 공감하는 관점이 자칫 군주를 비판하는 관점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이존오는 주관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관습을 활용하였을 뿐 아니라, "光明한 날빛"이라는 표현을 통해 군주는 모든 신민에게 골고루 은혜를 내리고자 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이러한 표현은 공민왕이 비판의 대상에서 빗겨나 있게 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처럼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면서 이존오는 '구름이 無心하다'는 명제

가 신돈의 경우에는 실제와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虛浪'이란 실제(reality)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 거짓이라는 말이다. 공민왕은 '구름이 無心하다'는 말을 믿고 신돈을 중용한 것인데, 이존오는 그 말이 신돈의 경우에는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그 근거를 '比而賦'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존오는 사리사욕이 없는 인물이라면 "날빛을 따라가며 덮는 구름"처럼 신민에게 두루 미쳐야 할 聖恩을 가리지 않는다고 전제한다. 하지만 反例를 통해 신돈은 신민에게 두루 미쳐야 할 聖恩을 따라다니며 덮고 있음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구름이 無心하다'는 말이 신돈의 경우에는 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존오가 <구름이>를 창작한 시점은 실증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다. 인용한 해설 가운데에는 <논신돈소>를 올리는 일로 治罪된 이후의 어느 시기로 추정하는 사례가 없지 않다. 근거를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그 해설들처럼 그 이전 시기에 <구름이>를 창작하였을 개연성은 없어 보인다. <논신돈소>에 의해 신돈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문제적인 인물로 거론되지 않았다면 신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담은 행위 또한 용납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구름이>는 <논신돈소>를 올린 일로 治罪된 이후의 어느 시점에서 창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시점은 비판의 관점과 준거를 바꾸어야 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을 때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어느 시점일까?

이존오는 1366년 10월에 長沙監務로 貶職되었다.[35] 1368년 해당 직위에서 물러나 如意할 수 있게 허락됨에 따라 公州 石灘에 거처를 마련하여 이거하였으며, 그곳에서 화병으로 죽었다(1371). 그 사이 창작한 시문이 없지 않다.[36] 하지만 <石灘行> 이후에 창작한 시문은 전하는 것이

35) 『高麗史』 41卷 世家 41 恭愍王 15年: 甲子. 左司議大夫鄭樞・右正言李存吾, 上疏論辛旽. 王大怒, 貶樞爲東萊縣令, 存吾爲長沙監務.

36) 成石璘(1338~1423), <題石灘詩卷得錦字石灘李存吾所居>(『獨谷先生集』 卷上詩)에서 詩卷이 李存吾가 石灘에서 지은 시편을 모은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런데 이존오가 石灘이라 불리기 시작한 이후의 시점에서 이존오의 시편을

없다. 이것은 <석탄행> 이후에 실제 시문을 창작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것이 鄭夢周(1337~1392)의 시 <寄李長沙順卿>이다.

> 봄바람에 괴로이 이 장사 생각하며
> 남루에 기대 있으니 해가 지려네요.
> 선실(宣室)에서 성은(聖恩) 입을 날 멀지 않았으니
> 석탄의 밝은 달일랑 자랑하지 마시라.
> 春風苦憶李長沙, 徙倚南樓日欲斜.
> 宣室承恩應未遠, 石灘明月不須誇.[37]

이존오는 정몽주를 인생의 의지가지로 생각했다. 이존오와 정몽주는 新京 東堂科 同年이다. 정몽주와 함께 史翰에 보임된 후 水原書記의 관직에서 물러나 귀경하는 길에 지은 <還朝路上望三角山>[38]와 禮曹正郎·成均博士로 재직하고 있는 정몽주에게 보낸 <鄭正郎夢周見贈次韻寄呈>[39]을 통해 정몽주와 삼각산의 한 암자에서 3년 가까이 함께 수학

모은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錦'자가 장사감무로 좌천된 시기에 동생의 집에 머물 때 지은 <宿弟存中錦城村家有感>의 제목에 쓰인 글자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후자의 가능성이 더 크다.

37) 鄭夢周, 『圃隱先生文集』 卷之二; 『新增東國輿地勝覽』 第18卷, 扶餘縣 山川 石灘.

38) 『東文選』 第16卷, 七言律詩; 『新增東國輿地勝覽』 第3卷, 漢城府 山川 三角山:
기묘한 세 봉우리 멀리 하늘에 닿았고, 허무한 원기 구름 내에 쌓였네.
위로는 서슬 날카로워 긴 칼 찌르는 듯, 옆으로는 높고 낮아 푸른 연(蓮)이 솟은 듯.
몇 해 동안 절에서 글을 읽었던가? 두 해를 한강 가에 머물렀지.
누가 조물주가 무정하다고 했던가? 오늘 마주보니 가슴 뭉클한데.
三朶奇峯迥接天, 虛無元氣積雲烟.
仰看廉利攙長釰, 橫似參差聳碧蓮.
數載讀書蕭寺裏, 二年留滯漢江邊.
孰云造物無情者, 今日相看兩慘然.

39) 『東文選』 第21卷, 七言絶句:
설만암에 유학한 지 삼 년, 독한 술에 깨지 않고 스스로 즐기고 있네.

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정몽주는 新京(南京) 東堂科에서 수석을 차지했다. 그런 까닭에 함께 수학하여 과거에 급제한 동년이지만 이존오에 비해 出仕와 昇進이 앞섰다. <鄭正郎夢周見贈次韻寄呈>는 이존오가 그런 처지에 있는 자기 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정도로 정몽주를 신뢰하고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인용한 시는 정몽주가 이존오의 <石灘行>에 대해 화답하여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석탄행>에서 이존오는 정몽주가 하지 말기를 권유하고 있는 "석탄의 밝은 달"을 한껏 자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옛 나라 백제, 장강의 구비,
석탄 풍월이 주인 없어진 지 몇 해던가?
들불이 평원을 태워 손바닥 같이 편편하고,
때때로 누른 소가 묵은 밭을 간다.
내가 와서 정자 짓고 승경 찾고 있으니,
온갖 경치 아름다움 다투며 앞으로 몰려든다.
구름 내는 이무기 굴에 가물거리고,
산 아지랑이 아물아물 먼 하늘에 떴다.
모래 언덕 끊어진 곳에 갯물이 들고,
큼직한 돌들이 비스듬히 줄지어 물가를 가로질렀다.
쪽배 남쪽으로 돌리면 더욱 그윽한데,
돌난간, 계수나무 기둥이 맑은 연못 곁에 있다.
돌부처는 응당 의자왕 시대를 지켜보았을 텐데,
들 두루미만 와서 참선할 뿐.
그려지네, 옛날 당나라 장수가 바다 건너 이르렀을 때
씩씩한 10만 장병 북소리 둥둥하는 것이.
도성 문 一戰에 나라를 무너뜨리자
군왕은 속수무책 묶임을 당했었지.
신물도 넋이 빠져 지키지 못했는지,

이별 뒤에 세월은 번개처럼 내닫는데, 슬프구나, 이끌어줄 사람 없음이.
游學三年雪滿巖, 醇醪不覺自沈酣.
別來歲月奔如電, 怊悵無人爲指南.

돌 위에 남은 자취 아직도 구불구불.
낙화암 아래 물결만이 출렁이고,
흰 구름은 천 년 동안 공연히 자유롭고 편안한 듯.
百濟故國長江曲, 石灘明月閑幾年.
野火燒原平如掌, 時有觳觫耕菑田.
我來構亭探勝景, 萬景媚嫵爭來前.
雲煙明滅蛟龍窟, 山翠空濛浮遠天.
白沙岸斷浦溆入, 傑石邐迤橫江邊.
扁舟南轉凡裊窕, 石欄桂柱臨澄淵.
石佛應見義慈代, 唯有野鶴來參禪.
憶昔唐將航海至, 雄兵十萬鼓鼜鼜.
都門一戰謾傾國, 君王拱手被拘攣.
神物慘悛亦不守, 石上遺跡猶蜿蜒.
落花巖下波浩蕩, 白雲千載空悠然.[40]

이존오는 석탄 이주를 결심하고 거처를 마련하였는데 그 일련의 과정에 그가 어떤 생각을 지니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화자는 "석탄 풍월"이 "주인 없어진 지 오래"여서 자신이 새 주인이 되고자 "정자 짓고 승경을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화자가 바로 이존오의 형상이다. "온갖 경치 아름다움 다투며 앞으로 몰려 든다."라는 말은 석탄의 자연 경관이 매우 아름답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정몽주의 말대로 표현하면 "석탄의 밝은 달"을 "자랑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41] 따라서 <석탄행>은 이존오가 석탄에서 여생을 보내고자 결심한 시기에 의지가지로 생각했던 정몽주에게 자신의 결단을 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창작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석탄행>에는 일체 타자에 대한 비판의식이 드러나 있지 않다. 그 어떤 시적 대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40) 李存吾,『石灘集』上, 遺稿, 詩.
41) 이 시에 대해 "울분에 싸여 있던" 이존오가 "백제의 흥망과 고려의 성쇠를 견주"었다고 한 견해(김동욱, op. cit., 188쪽)가 있었지만, 동의하기는 어렵다.

오직 자연 속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며 살아가겠다는 태도만이 도드라져 있을 뿐이다. '白雲'이라는 시적 대상에 대해서도 부정적·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어디에도 간여하지 않는 '白雲'의 형상만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그런 그가 석탄 생활 중에 신돈 때문에 화병이 들고 신돈의 횡포가 더욱 심해지자 화병이 심해져서 2년간 병상에 누웠다가 殞命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는 "신돈이 죽어야 내가 죽을 것이다."[42]라고 했다고 한다. 자연 속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며 살아가겠다고 결심한 인물이 보일 수 있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변화는 <석탄행>에 대한 정몽주의 화답시 <기이장사순경>이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준 듯하다. 『석탄집』에 따르면 정몽주의 화답시는 1368년에 지은 것이다. 정몽주는 <석탄행>에서 이존오의 태도를 확인하고는 "선실에서 성은 입을 날"이 멀지 않았다고 전함으로써 자연을 노래하며 석탄에서 여생을 보내고자 하는 결심을 바꿀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존오의 진로 선택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한 데서 정몽주 또한 이존오와의 관계를 각별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두 사람이 서로의 관계를 각별히 여겼다면 정몽주의 화답 시를 받은 이후에 이존오가 "석탄의 밝은 달"을 자랑하는 창작 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았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석탄의 밝은 달"을 자랑하며 여생을 보내고자 한 결심을 버리는 순간 정치 현실에 대한 울분과 신돈에 대한 비판의식이 되살아나게 마련이다. 이존오는 정몽주의 화답 시를 받을 무렵(1369)[43]에 자주 병상 신세를 지고 있었다. 죽기 전 2년 동안 주로 병상에 누워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이존오가 정몽주의 권유를 받아들였음을 말해 준다. 그런 점에서 이 시점에서 "석탄의 밝은 달"을 자랑하는 시문은 더 이상

42) 『高麗史』 112卷 列傳 25 李存吾: "旽亡吾乃亡."
43) 李存吾, 『石灘集』 年譜: 二十九歲己酉. 恭愍王十八年. 大明洪武二年. 在石灘. 圃隱鄭先生憶先生. 有石灘明月不須誇之句.

창작하지 않았을지라도 <구름이>와 같은 노래를 창작했을 가능성은 고려해 볼 수 있다.

정몽주가 이존오 소환을 확신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모든 역사 기록이 <석탄행> 창작 시기 이후 신돈의 권력 전횡이 한층 더 심해졌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존오는 정몽주의 뜻이 진실한 것으로 신뢰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몽주의 권유가 있고 난 이후의 어느 시점에서 <구름이>가 창작되었을 개연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시기에 이존오는 공민왕이 문제 삼은 세 부류의 신하와 다른 처지, 곧 인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만일 정몽주의 뜻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이유 또한 신돈 탓이라 여겼다면 이존오는 <구름이>에서와 같이 신돈이 "따라가며" 햇빛을 덮고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름이>를 통해 좀처럼 바뀌지 않는 정국 때문에 답답해진 심경을 토로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의도에서 창작되었다면 <구름이>는 그동안 이존오가 보여 왔던 정치적 행보의 의의를 무색케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도의 저변에는 그가 비판하고자 하는 사적인 욕심이 자리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따라서 <구름이>가 석탄에서 생활하던 시기의 어느 시점에서 창작되었다고 보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달리 추정해 볼 수 있는 시기는 長沙監務로 貶職되어 있던 시기이다. 監務란 지방관이 常駐하지 않는 통치(행정)단위에 부정기적으로 파견되어 民政을 보필하는 관직이었다. 내직에서 고위직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외직을 거치도록 법제화하였지만 예나 지금이나 내직 곧 중앙 관직에 보임된 인물은 외직에는 나가기를 꺼려한다. 그래서 법제와는 달리 외직에 나가지 않아도 고위직으로 승진하는 사례가 늘고, 이존오 당대에는 관행처럼 만연했다. 罪科에 걸려 治罪되지 않고서는 감무로 폄직되는 일은 흔치 않았다.[44] 이러한 관행은 중앙과 지방 사이의 소통이 원활하

44) 이존오 이전에 長沙監務로 폄직된 인물로는 崔瀣(1287~1340)가 유일하다.

게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民弊 혹은 民瘼은 심해지게 마련이다. 실제로 그의 시대는 중앙과 지방, 특히 지방관이 상시 파견되지 않은 지역민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시대였다. 그러한 시대 상황에서 이존오가 내직에 있을 때 신돈을 신랄하게 비판하다가 외직인 長沙監務로 貶職되었다고 해서 <논신돈소>의 주장이 長沙와 茂松[45]의 지역민들에게까지 큰 호소력을 가질 수는 없었을 것이다. 長沙監務로의 貶職은 治罪의 결과이고, 그것은 군주에 의해 최종 결정된 것이다. 지역민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존오는 죄과에 걸려 군주에 의해 폄직된 인물일 뿐이다. 여기서 지역민들이 군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지 않는 한 이존오를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으리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바로 이 시점에서 이존오는 지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의 주장에 공감하도록 할 필요성을 어느 시기보다도 더 절실하게 느꼈다고 볼 수 있다. <논신돈소>에서 보여준 비판의 관점과 준거를 바꾸어 신돈을 다시금 비판하면서도 그 비판의 대상이 군주에게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애써[46] 차단하고자 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라야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우탁과 이조년의 시조가 모두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 좀 더 많은 청자(독자)들과 소통하고 공감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차원에서 창작되었다는 선행 논의 또한 長沙監務로 폄직되어 있던 시기의 어느 시점에서 <구름이>가 창작되었으리라는 추정을 뒷받침한다. 漢詩文에 한층 더 익숙했던 인물들이 시조와 같은 우리말 노래를 창작하는 행위도 일종의 관습이다. 그 관습이 작가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 漢詩文을 해독하

45) 長沙監務는 茂松을 아울러 監務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었다.

46) “구타여”는 신돈이 인민에게까지 미치는 군주의 은혜를 “애써” 차단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드러내는 효과가 있는데, 이존오는 자신의 비판이 군주에까지 미치지 않도록 “애써” 차단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구름이>는 군주에 대한 태도의 극단적인 차이를 아울러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대상을 넓혀 소통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생겨났다면 이존오 또한 그러한 관습의 속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름이>는 長沙監務로 貶職되어 있던 어느 시기에 신돈에 의해 民弊 혹은 民瘼이 심해지고 있음과 아울러 신돈에 대한 자신의 비판 행위가 정당한 것이었음에 지역민들이 두루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창작 의도가 있었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Ⅴ. 결론

고려 말기 시조 작품은 국어교육에서 일찍부터 교육 자료 혹은 학습 제재로 널리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교과서적 해설의 기틀을 마련해 준 선행 독법들은 텍스트의 의미론적 통일성을 명확하게 분석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작품의 함의를 합리적인 이해 과정을 통해 해석해 내지 못하였다.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은 텍스트의 의미론적 관계를 분석하고 그 관계가 의미를 갖게 되는 맥락을 추론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그 과정에서 학습 주체는 언어를 통해 문화를 이해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문화란 맥락의 총합이다. 언어 교육이 추구하는 언어 능력 혹은 학식(literacy)은 바로 그러한 능력을 가리킨다. 고려 말기 시조 작품을 교육 자료나 학습 제재로 활용하는 수업은 이 능력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교과서적 해설의 기틀을 마련해 준 선행 독법들은 그러한 과정을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텍스트와 독법 결과를 기계적으로 연결 지어 '기억'하는 활동을 조장해 왔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맥락 연구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존오의 시조 <구름이>에 대해 새로운 논의를 전개하였다. 논의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⑴ <구름이>는 '구름이 無心하다'는 명제를 부정하는 주장을 제시하

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짜인 텍스트이다. 주장과 근거는 모두 비유적으로 표현되었으며 특히 근거는 제시한 명제를 부정할 만한 反例에 해당하는 일을 서술하고 있다. 이는 <구름이>가 '比而賦'의 방법으로 창작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름이>에 함축된 작가 의도는 비유 체계에 대응하는 현실 세계의 상황을 적확하게 추론하여 해당 명제를 인용하고 부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밝히는 방향에서 파악될 수 있다.

⑵ <구름이>는 <논신돈소>와는 신돈을 비판하는 관점과 준거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논신돈소>가 공민왕과 공민왕이 비판적으로 인식했던 지배 세력의 관점에서 공감될 수 있는 예법을 준거로 삼아 신돈을 비판하였다면 <구름이>는 인민들까지 널리 공감할 수 있는 관점으로 바꾸어 신돈이 군주의 은혜가 신민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는 인물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논신돈소>와 <구름이>에서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 인물은 동일하다 하더라도 창작 의도까지 동일하지 않음을 말해 준다. 따라서 <구름이>의 창작 의도는 이존오가 비판의 관점과 준거를 바꾸어야 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을 시점을 추론하는 방향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⑶ 맥락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은 선행 독법에서 가리키는 바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던 '구름이 무심하다'는 명제가 공민왕이 국정 쇄신을 위해 신돈을 동반자로 重用할 때 기대었던 논리였다는 점이다. 공민왕은 국정 쇄신을 위해 巨族大臣, 草野新進, 儒生들도 중용해 보았지만 이들이 하나같이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얽매여 국정 쇄신을 함께 추진할 동반자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그리하여 대안으로 승직을 포함하여 그 어떤 관직에도 있지 않으면서 得道하여 慾心이 적다고 알려진 신돈을 중용하였던 것이다. <구름이>는 그 명제가 신돈에 있어서는 참이 아니라 거짓이라고 反例를 제시하여 주장하고 있는 작품이다.

⑷ <논신돈소>에서 이존오는 공민왕이 신돈을 중용할 때 활용한 논

리를 반박하지 않았다. 하지만 長沙監務로 貶職된 시기는 이존오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지역민들과 소통하여 지역민들로부터 공감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을 시점이다. 監務는 지역민들과의 소통이 특히나 중요한 관직이었다. 또한 예법이란 준거에 의한 신돈 비판은 해당 지역민들에게까지 호소력을 갖기 어려웠을 것이다. 지역민의 관점에서 이존오는 군주에 의해 治罪되어 폄직된 인물일 뿐이기 때문이다. 군주에 대한 비판의식을 갖지 않는 한, 그에 대한 지역민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이존오는 비판의 관점과 준거를 바꾸어 신돈이 군주의 은혜가 지역민들에게 두루 미치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하여 民弊 혹은 民瘼을 초래하는 인물로 형상화함으로써 '구름이 無心하다'는 경구가 신돈의 경우에는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노래를 창작한 것이다(신돈에 대한 비판이 군주에 대한 비판으로 확대되지 않는 장치를 마련해 두었음은 물론이다). 말하자면 <구름이>는 지역민들로 하여금 신돈에 대한 비판의식을 공유하는 동시에 자신이 신돈을 비판한 행위에 공감하도록 하는 의도에서 창작된 작품인 셈이다.

이러한 독법의 과정과 결과가 <구름이>의 언어 교육적 활용 가치를 제고함은 물론, <구름이>의 창작 의도를 좀 더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이존오를 비롯하여 漢詩文 해독 능력이 뛰어난 고려 말기 지식인들이 시조와 같은 우리말 노래를 창작했던 맥락에 다가가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高麗史』
『東文選』
『新增東國輿地勝覽』
成石璘, 『獨谷先生集』(韓國文集叢刊 6)
李存吾, 『石灘集』(韓國文集叢刊 6)
鄭夢周, 『圃隱先生文集』(韓國文集叢刊 5)
김흥규 · 이형대 · 이상원 · 김용찬 · 권순회 · 신경숙 · 박규홍 편저, 『고시조대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
沈載完 편저, 『歷代時調全書』, 世宗文化社, 1973.
鄭炳昱, 편저, 『時調文學事典』, 新丘文化社, 1982.

김동욱, 「石灘 李存吾의 士大夫意識과 詩歌」, 『泮橋語文硏究』 2, 泮橋語文學會, 1990, 179~192쪽.
김종오 편저, 『겨레얼 담긴 옛시조감상』, 정신세계사, 1990.
김진영 · 정병헌 · 정운채 · 조세형 · 조해숙 · 최재남, 『한국시조감상』, 국어국문학회, 2012(2011).
安廓, 『朝鮮文學史』, 韓一書店, 1922.
오종일, 「려말 의리정신과 이존오의 충절의식」, 『범한철학』 27, 범한철학회, 2001, 21~37쪽.
이병기 · 백철, 『표준 국문학사』, 신구문화사, 1957.
李秉岐 · 白鐵, 『國文學全史』, 新丘文化社, 1960(1957).
李廷倬, 「時調史硏究 <1>」, 『安東大學 論文集』 10, 安東大學, 1988, 3~14쪽.
이태극, 『우리의 옛 시조』, 경원각, 1984.
임주탁, 「우탁 시조 작품의 창작 맥락과 함의」, 『배달말』 56, 배달말학회,

2015, 195~230쪽.
임주탁,「이조년 시조 작품의 분석과 해석」,『우리말글』65, 우리말글학회, 2015, 155~201쪽.
임주탁,『한국 고시가의 반성적 고찰』, 태학사, 2013.
조동일,『한국문학통사』2, 지식산업사, 1985(1983).
趙潤濟,『敎育 國文學史』, 東國文化社, 1956(1949).
趙潤濟,『朝鮮詩歌史綱』, 東光堂書店, 1937.
秦東赫,『古時調文學論』, 螢雪出版社, 1988(1976).

박인희,「구름이 무심탄 말이」, 낯선 문학 가깝게 보기: 한국고전.
(http://terms.naver.com)
백원철,「구름이 무심탄 말이」, 한국향토문화대전.
(http://www.grandculture.net)

<Abstract>

A Contextual Study of Yi Jon-o's Sijo

Yim, Ju-Tak

This research aims to make an alternative to former interpretations of Yi Jon-o 李存吾's Sijo, *Guruemi* (Cloud is) by inferring the context of its text and interpreting the meaning of it. Most researchers have presumed that it is an allegoric text corresponding to the real political world, but none of them have analyzed the semantic coherence of the text and sought enough information of the context to interpret its meaning reasonably. Nevertheless, most results of their readings have formatted the best normal explanation of the song. So most readers or students have apprehended it in the same context as that of the historic event which Yi severely criticized Shin Don 辛旽 by submitting *Nonshindonso* 論辛旽疏 (A Memorial against Shin Don to the Throne) and hurling words at him in the presence. Although the censuring target of Yi's speech and behavior in the historic event was similar to that of the song, there is an important deference between the memorial and the song, that is to say, each point and criterion of criticizing Shin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memorial. While reading the memorial, we know that Yi was criticizing Shin for his behaviors which had run counter to the proprieties in the viewpoint of the rulers. On other hand, he described Shin as a blocker who always stopped the benevolence of the king given to the people at the song. It implies that the contexts of the two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While reading the song text, we can meet a speaker who makes an argument against a thesis “Cloud is not greedy,” and know that it is the key point of apprehending the work to find out why the writer cited that the thesis and tried to prove it to be false. The contextual study of this research leads us to know that the thesis was accepted as the basic logic by King Gongmin 恭愍王 while he was being eager to promote Shin to a responsible post or powerful partner in innovating and reforming the old national administration system. And we can infer the context of the song like this; while Yi was demoted due to the memorial by the king and was supervising Jangsa 長沙, an area of Jeolla province and people in charge, he needed to let the people apprehend his behavior at the court in the past, and agree or sympathize with his opinion that Shin was not a well-qualified person. It would not be appealed to the people that Shin was to be blamed for violating etiquette as a vassal of the king, because such a blame was changeable according to what viewpoint the subject of a blame had.

Here, we can also appreciate that Sijo including the song had been used as vehicle with which a writer of the noble class hoped to communicate with their people, native Korean, in the last period of Koryŏ Dynasty, Korea. So the process and result of this contextual study may be helpful for our students to apprehend characteristics of Sijo more explicitly and more deeply. And it is useful for them to develop their literacy or decoding competence more easily and more effectively through practicing the same or similar method of reading a literary text reasonably as that of this study.

Key Words : Sijo in the last period of Koryŏ Dynasty, Yi Jon-o 李存吾, *Nonshindonso* (A Memorial against Shin Don 辛旽 to the Throne), allegory, contextual study

▌논문접수 : 2016년 6월 13일
▌심사완료 : 2016년 7월 29일
▌게재확정 : 2016년 8월 16일